

2021년 중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에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정보 유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감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참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신분확인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금융권 ATM 활용방식 개선 등 지급결제 혁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업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

①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수단 이용행태도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무인주문기·무인매장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비대면 지급수

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물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지급결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령층 등에서 급격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픈뱅킹의 확산은 이용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결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커졌다.

②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현금이용 감소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관련 연구 및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수단으로 시범 사용하였다. 나이지리아, 바하마, 동카리브 국가기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

은행 디지털화폐를 실제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국제기구·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암호자산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은 데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하여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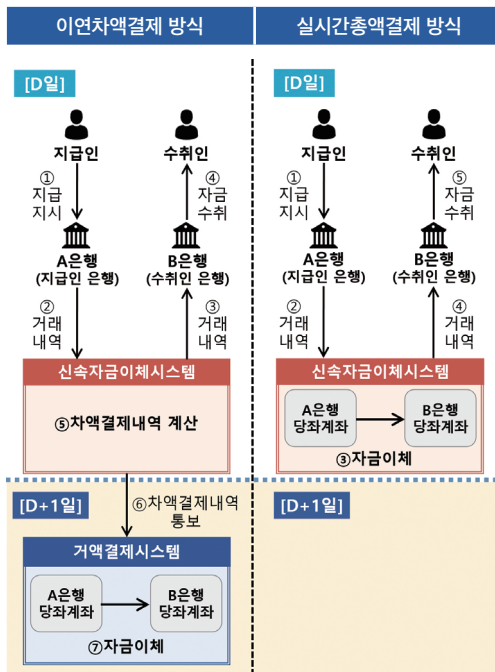
이에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과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2021.10월)하였다. 동 보고서는 시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3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유럽중앙은행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전자지급수단에 적용될 새로운 통합 감시체계를 도입하였다.

③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등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절감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다량의 소액거래를 건별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구축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결제방식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자료: 국제결제은행

아울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과 금융안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TF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제결제는 행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22개 국가의 36개 지급결제시스템이 타국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14개 지급결제시스템이 향후 5년 이내에 타국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는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 최근 구축 사례가 늘고 있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자료: 한국은행

④ 금융과 IT 간 융합,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과 IT 간 융합,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IT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원격접속프로그램의 보안 결함 등에 의한 사이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기관은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산하 혁신허브의 사이버보안

워킹그룹을 통해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사이버복원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워킹그룹의 회원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참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자금이체 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 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3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20%p 인상하고, 2019년 다시 70%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한시적으로 70%에서 50%로 인하하고 매년 10%p씩 인상하려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이후 한시적 담보제공비율 인하 조치가 2022년 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월 1일 동 비율을 다시 7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2025년 2월까지 100%를 목표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

(%)						
16.8월	19.8월	20.4월	22.2월	23.2월	24.2월	25.2월
50	70	50	70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은행들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는 국채, 통안증권 등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제시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시점의 담보납입금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미사용 담보금액으로 간주하여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사용 담보금액 산출을 위하여 순이체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2022.2.1일 시행)하였다.

⑥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오픈뱅킹공동망을 평가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6년 8월 핀테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이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자본금 20억 원 미만의 중소형 핀테크업체로 제한하였으나 2019년 12월 핀테크 혁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후 동 시스템을 통한 자금

이체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동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및 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22년 중에도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동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㉗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기술적 기반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단위업무와 업무절차 등을 도출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모의실험(2021.8~12월)에서는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단계 모의실험(2022.1~6월)에서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

페 이용자의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한국은행법」 등의 개정 방향 및 범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기술분야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과 같은 기술적 이슈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였다.

㉘ 한국은행은 ATM 활용방식 개선을 통하여 금융포용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신분확인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ATM 활용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금융권의 ATM 설치·운영 관련 세부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맵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하였다. 분산ID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신분확인체계이다. 동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이 제공하는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분산ID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12월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광대역 재해로부터 중요 금융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결제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은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의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⑨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2021년 중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및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금융시장인프라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한은금융망은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복원력 등 일부 사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평가되었다. 다만 손실복구 대응체계, 증거금 관리체계,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3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들의 일종유동성 및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이후, IT 관련 장애 발생 시 한국은행 앞보고 기준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등의 보완을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외환동시결제시스템 및 국제 금융전문 통신망에 대한 국제적 협조 감시활동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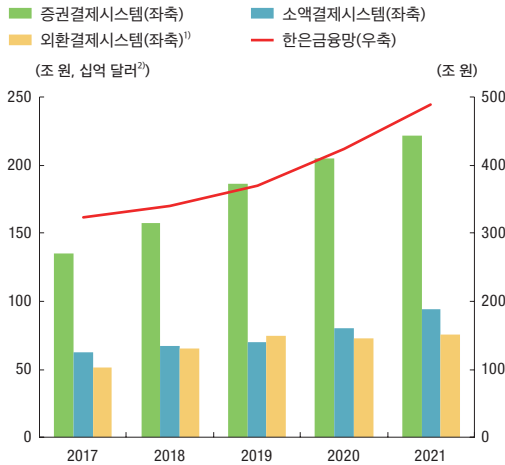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⑩ 2021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평균 221.7조 원으로 기관간RP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7.6% 증가한 94.3조 원(일평균 기준)을 기록하였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753억 달러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증권·소액·외환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한은금융망의 결제금액은 일평균 488.5조 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주: 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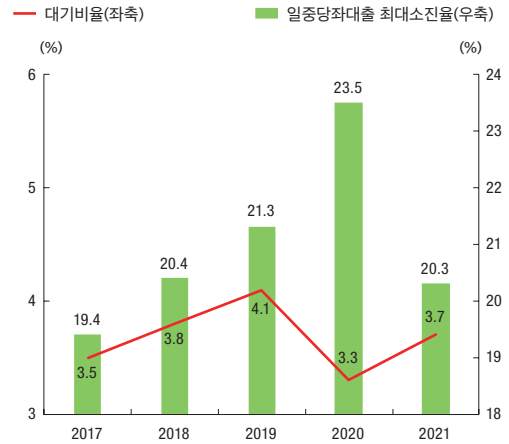
2) 외환결제시스템은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11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액 및 증권 결제, 국제적으로 연계된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결제 서비스를 연중 원활히 제공하였다.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비율은 3.7%로 전년(3.3%)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0.3%로 전년(23.5%)보다 하락하였다.

대기비율¹⁾ 및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²⁾ 추이(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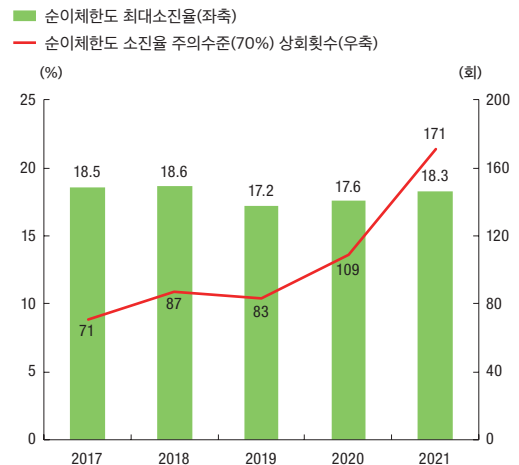
주: 1)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다자간 동시처리 대기 제외)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21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8.3%로 전년(17.6%)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71회로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109회) 대비 증가하였다.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¹⁾ 및 주의수준(70%) 상회횟수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장내 주식시장의 결제는 기준시한 이전에 전액 완료되었고, 장외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경우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가 분리되어 결제된 비중이 5.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향후 정책방향]

⑫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용리스크 축소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결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참가제도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TF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의 실행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원화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 ATM 활용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단계 모의실험에 이은 후속실험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설계 모델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ATM 활용방식 개선을 지속하여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⑭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국제기구의 평가 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부문에서 빅테크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와 관련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감시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험 증대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의 사이버복원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과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동으로 2021년 중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IT부문 사이버복원력을 평가할 때 적용한 평가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류되고 있는 국제기구의 각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